한국 기독문화 과제

송영옥(작가 영문학박사, 국제 PEN 정회원)

I. 서론

본 연구는 한국 기독문학에 관한 두 가지과제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기독문학도 이제까지 전 세계의 성서학자나 문학작가들의 연구의 결과처럼 기독문학을 좀더 전력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기독문학을 통하여 이 시대의 혼란을 극복하고 인간의 삶에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미학적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의 문학 작품이다'라는 주장은 성서가 미적정서의 최고의 기능인 열정과 그 열정의 최 상위 단계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랑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의 passion의 어원 passio는 '고통을 받는다'라는 뜻이다. 열정은 단순히 사랑한다는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희생하고 그 고통을 감수하는 상태이다. 성서는 바로 이러한 미적 정서로 감동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구원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문학적 성경해석을 필요로 한다. 그리스도의 인류를 향한 사랑을 표현한 그의 수난(The Passion)과 수난극(The Passion Play)이 불멸하는 생명성을 지니고 오늘 날 까지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루이스(C.S.Lewis)는 "건전한 의미에서, 성경은 결국 문학이므로 문학으로서가 아니면 올바로 읽을 수 없다."[1] 고 하였으며 프라이(Northrup Frye)는 "성경은 실제로 문학이 되지 않고도 최대한 문학적이다. "[2]라고 하였다. 또한 루이스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확대하기를 바라며 현재의 자기이상의 것이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문학은 이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것이 곧 문학의 존재이유'[3] 라고 하였다.

그리고 폴진(Polzin), 크로산(Crossan), 데트바일러(Detweiler)등의 성경학자들은 성경연구의 도움을

1) C. S. *Lewis, Reflections on the Psalms* (Glasgow: Collins, 1961) 10.
2) Northrup Frye, *The Great Code* (London: A가, 1982) 62.
3) C.S. Lewis. " Preface" to *Paradise Lost* (Oxford Univ. Press, 1942) 3.

얻기 위해 문학적 방법을 도입하였으며[4] 알터(Robert Alter), 라이컨(Leland Ryken), 커모드(Frank Kermode), 프라이(Northrop Frye)등의 문학 연구가들이 문학 비평으로서의 성경에 접근함으로써 미학이나, 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뿐만 아니라 독자와 청중에게 감명을 주는 예술적 수단으로서의 성경 연구를 체계화 하고 있다.[5]

그리고 이미 금세기의 위대한 작가들, 엘리옷(T. S. Eliot)나 카프카(Franz Kafka), 톨스토이(lev. N. Tolstoj), 그리고 블레이크(William Blake, 1757-1827)등이 그들의 작품 속에서 성경은 추상적인 교리의 형태로나 조직신학의 형태로가 아니라 문학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석하면서 기독교는 세계에서 가장 문학적인 종교라고 주장하였다.[6] 톨스토이는 그의 『예술론』에서 모든 예술은 결국 기독교적 이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워즈워스와 함께 영국 낭만기 제 1세대의 위대한 시인인 블레이크는 자신의 예언적 능력(visionary)을 신화 형태로 시에 담은 『천국과 지옥의 결혼』(*The Marriage of Heaven and Hell*)에서 플라톤적인 이원론에 의해 굳어진 예수를 배격하고 예수를 인간의 상상을 꽃 피우게 하는 인물로 보았다. '상상은 문학의 본질적 요소'[7]이다.

또한 19세기의 많은 작가들은 1611년 판 영역성서[8]의 운율을 끝임 없이 흉내 내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다른 문화의 글 속에서 유행하고 있는 속담들을 흉내 낼 때에 얻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그리고 미국대학의 많은 강좌들이 "문학으로서의 성서"(The Bible as Literature)를 개설하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문학적인 영향을 끼쳐왔는데 영문학의 기준으로 볼 때에 가장 큰 영향은 성경이 그 존재의 필연성과 함께 하나의 통일체로 읽히면서 통일체로서 인간의 상상을 끝임 없이 자극했다는 점이다. 내가 기독문학을 전력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즉 성서는 천지 창조와 함께 시간이 시작되는 곳에서 시작해서 요한 계시록과 같이 시간이 끝나는 곳에서 끝을 맺는다. 그리고 성서는 그 사이에 있는 인간의 역사, 즉 아담과 이스라엘이라는 상징적 이름아래 성서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모습을 개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짧은 구체적인 이미지들로 가

---

4) D. Crossan, "'Ruth amid the Alien Corn': Perspectives and Methods in Contemporary Biblical Criticism," in the *Biblical Mosaic* (ed. R. Polzin and E. Rothman (Philadelphia: Fortress, 1982)

5) Alter, Robert and Frank Kermode, eds. *The Literary Guide to the Bible* (Cambridge: Harvard Unv. Press, 1987)와 Frye, Northrop, *Anatomy of Criticism* (Princeton: Princeton Unv. Press, 1957) 그리고 Ryken, Leland, *The Literature of the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1974)

6) T. S. Eliot은 'Four Quartets' 의 제 2부에서 "가톨릭적인 심경, 칼빈적인 정신유산과 청교도적인 기질을 겸비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작품세계를 규정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하는 인간과 창작하는 시적정신과의 사이의 미묘한 유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고전으로부터 프랑스의 상징주의에 이르는 다채로운 표현으로 거침없이 미학적으로 형상화 하였다. 카프카문학은 인간존재의 본질적인 취약성을 하나님의 심판과 은총이라는 일관된 주제를 『관찰』『판결』『심판』등의 작품 속에서 다루고 있으며 톨스토이는 내면생활의 모순에서 오는 사상적 동요를 과학이나 철학에 의해 해결하지 못하고 기독교에서 구원을 얻은 일생을 살면서 그의 작가적 소신을 『전쟁과 평화』『안나 카레니나』등과 『요약복음서』『교회와 국가』『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등의 작품을 통해 삶과 신앙과 문학을 일체화 시켰다.

7) Walter Besant and Henry James, *The Art of Fiction* (Boston: De Wolfe, Fiske & Co., 1934) 3.

8) 제임스 1세의 재가에 의해 54명의 성서학자들이 번역 편집하여 1611년 완성한 Authorized Version으로 *King James Bible*이라고도 함. 영국 산문의 한 기념으로 근대 영어문체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음.

득차있다. 도시, 산, 강, 정원, 나무, 기름, 샘, 빵, 포도주, 신부, 양,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자주 반복됨으로서 어떤 통일적 원리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독문학은 협의의 문학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재 한국의 기독교문학에 대한 정의를 논한 대부분의 글에서는 챠드 왈쉬(Chad Walsh)가 정의한 '기독교 문학은 하나님, 그리스도, 영혼등과 같은 단어가 자주 나오는 책, 혹은 교회 생활, 목사, 혹은 헌신적인 영혼 등을 취급하고 있는 책'[9] 이라고 말한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다.

즉 현실적으로 한국기독문학은 개인적인 신앙체험을 쓴 간증문이나 선교를 목적으로 한 설교문, 그리고 기독교인 작가의 작품으로 소재와 배경을 교회생활 또는 성서에서 취하였을 때 이들을 기독문학이라고 규정한다. 이로 인하여 한국의기독문학은 해결해야할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기독문학의 본질, 즉 개념의 정립과 관계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문학과의 관계에서 야기된 문학의 작품성과 예술성의 문제이다.

그러나 나는 기독교문학을 기독교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러한 소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재에 대하여 문학적 광명을 줄 수 있는 열린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플래너리 오코너(Flannery O'Conner)는'기독교 문학은 반드시 기독교화 된 세계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다. 기독교문학이란 소재에 의해서 분류될 수는 없으며 단지 작가가 인간적 또는 신적인 실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의해서만 분류될 수 있다'[10]고 하였다.

한국의 기독문학이 안고 있는 두 가지과제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기독문학을 전력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이 시대의 혼란을 극복하고 인간의 삶에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먼저 II장에서는 기독문학론을 논의한다. 기독문학론은 이제까지 연구된 일반 문학론에 근거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일반 문학작품의 "가능케 하는 대화들(enabling conversation) "[11]에 익숙하지 못 한 상태로 독자들은 성경문학을 읽을 능력을 갖기 어려우며 작가역시 문학적 능력(competency in literature)을 향상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III장에서는 한국 기독문학의 역사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독문학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IV장에서는 한국기독문학의 과제와 그 대안을 '기독문학의 본질'과 문학의 조건인 작가와 작품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하고자한다.

그리고 V장에서는 각장의 논으로 도출된 결론에 부합되는 기독문학만이 미학적 의미에서의 기독문학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기독문학이 보다 더 전력적이어야 할 이유를 말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한다.

---

9) Chad Walsh, A Hope for Literature, "in *The Climate of Faith in Mordern Literature*, ed., Nathan A. Scott, Jr. (New York: Seabury Press, 1964) 232.

10) Flannery O'Connor, *Mystery and Manners,* ed., Sally and Robert Fitsgerald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57) 174. 196.

11) J. Culler, *Structuralist Poetics* (Ithaca: Cornell, 1975) 113.

II. 기독문학을 위한 변명

II-1. 문학론

1.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의 정의의 가장 흥미로운 특성은 그 불안정성이다. 새로운 문화적 단계가 나타남으로서 문학의 정의는 문화적 변화- 새로이 나타나는 관심의 방향, 이데올로기, 철학 쟁점 등-에 대응하여 혁신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짧은 안목으로 볼 때는 중대한 문화적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학의 현장적 정의(field definition)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현장적 정의는 비규범적이며 고도의 문화 수준에서 나오는 문학 뿐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수준에서 발견되는 문학적 담화를 문학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나는 문학을 순전히 객관적인 사실로도 보지 않고 순전히 주관적인 의식으로도 보지 않는다. 우리 자신이 세계 내에서 지각했다고 생각하는 기술된 부호나 발화된 음성을 우리의 정신이 반 창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타인의 정신으로부터 받아드렸다고 생각하는 의미나 명제들을 우리의 정신은 반 창조한다. 때문에 끝임 없이 변화하는 문학의 속성을 한정적으로 확정짓는 논리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소한 문학에 관한 일부 이론 중에 몇 가지는 문학세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탁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점이 내가 '기독문학'을 논하는 이유이다.

또한 문학은 사람의 인식자체의 주관성이 다른 학문에서 보다도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 이 때문에 하나의 문학론을 수용하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그 담론에 따라서 문학에 대한 스스로의 관점을 형성하게 된다. 그 결과 문학에 대한 다른 관점의 이해나 다양한 각도의 인식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문학은 다른 학문보다도 비체계적이고 비논리적이다.

따라서 한 사람이 자신의 이론으로 문학을 논한다 하더라도 문학이라는 다채로운 무지개를 완벽하게 포착하지는 못한다. 단지 문학을 논하는 것은 문학이라고 하는 거대한 무지개의 수많은 찬란한 색깔들 중 그 한두 개의 색을 어렴풋이 보여주는 것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학을 숙고하고 논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문학론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지개 그 하나의 색깔에서도 독특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장 비 체계적인 문학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논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까. 문학은 역사적으로 항상 개념적 이론적 규정의 틈과 문학론이라는 제도적 울타리를 부수고 헤집으면서 새로운 영토를 창출해왔다. 굳이 그 영토를 구분한다면 아마도 추상적인 학술적 문학론으로부터 안이한 문학 개론, 학문적 이론 없이 단지 예술가의 직관에 의해 쓰여 진 에피그램(epigram) 형식의 문학론 등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영역과는 조금은 다른 문학론, 즉 문학으로서의 기독문학론을 말하고자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문학 이론에 근거하여 성서를 대할 때에도 누구에게나 성서가 문학으로 매우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는 문학론을 말한다. 독자에게 이성과 지성으로 성서의 문학적 조건들을 인지함과 동

시에 영성으로 성서문학의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싶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서의 미적 정서를 통한 감동"이 기독문학론의 목적이다.

2. 그런데 성서는 진리의 말씀이고 문학은 허구의 세계인데 어떻게 성서와 문학을 동일시 할 수 있을까. 원래 성서문학(biblical literature)이란 문학으로서의 성서와 성서가 문학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분야를 가리킨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성서를 하나님 이계시한 책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학서로 간주하고 연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성서가 문학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함께 포함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성서문학'이란 의미는 성서의 진리를 문학적 형식으로 표현한 것, 다시 말하면 성서의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이 문학적이라는 의미로서 본고가 다루고 있는 기독문학의 한 부류로 사용한다. 언어적 형식으로 표현된 그 말속에 아무리 오묘한 진리가 있다하더라도 그 표현이 학술적이거나 신학적이라면 독자에게 감동을 주기 어렵다. 미적 감동이 없는 글은 문학일 수 없다.

인간은 문학을 통하여 길을 찾고 진리를 모색하고 생명을 꿈꾼다. 문학을 통해 찾아가는 길은 감동이라고 하는 심리적 반응을 통해서 이다. 감동이라는 이 울림은 한 인간이 대상을 자기의 온 몸으로 직관으로 파악하는 행위이다. 인간은 문학적 감동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의 기쁨에 동참한다. 그리고 슬픔과 고통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것들이 자기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 느낌으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이 반성으로 인한 각오가 우리를 억압하는 것과 억압당하는 것의 정체를 파악하게 만들며 그것의 부정적 힘을 인지하게 한다. 인간을 억압하는 이 부정적인 힘에 대한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세계를 개조하여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하는 열망을 갖게 한다. 에덴 회복에의 열망은 인간의 잠재된 욕망이다.

본고는 문학의 세계에서 '성서문학'을 관찰하고자 할 때에 이러한 시각의 양식을 통하여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문학적 반응을 유발하고 그 보상으로 언어구조물을 바탕으로 해서 기독문학의 개념을 형성하고자한다. 문학이 인간에 의해 "말하여지고 만들어진" 인간을 위한 진리의 길이라면 성서문학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그에 의해 만들어진" 진리의 길이다. 때문에 인간이 문학을 통해서 찾고자하는 길은 결국 성서문학 속에 숨겨져 있는 길이 아닐까한다. 내가 기독문학을 전력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리고 '기독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논의 자체는 오늘날 이시대가 문학성이라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 문학의 개념정립은 역사의 산물이다. 오늘날 우리가 문학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18세기 이후의 문학을 보는 관점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문학이론은 어쩌면 다음 세대의 새로운 관점에 의해서는 문학이 아닌 것으로 취급이 될 수도 있다.

미술 사가들은 미술의 기원을 원시인의 동굴벽화에서 찾는다. 문학 사가들은 인간의 모방충동이나 쾌락본능에서 그 기원을 찾기도 한다. 그러나 문학이라는 개념이 없는 곳에서는 문학적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활동이라 해서 그것 자체가 문학이 아니다. 그것을 문학으로 인지하는 것은 오늘날의 문학적 관점이지 고대의 문학적 관점이 아닌 때문이다.

우리는 고대의 사가(saga)나 끝임 없이 이어져 내려온 민담(folktale), 오늘 날의 익살 까지도 구전문학 작품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서사 장르들인 무대극과 오페라 영화 라디오 극, 발레나 무언극과 같은 비언어적 이야기로 전달하는 예술까지를 포괄하여 문학을 논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잡다한 딜렘마와 함께 현대문학의 관심의 중심으로 들어온 것이 "문학으로서의 성서"이다.

그동안 문학의 변방에서 홀대받던 기독문학이 문학의 관심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학적 관점에서는 성서는 미적정서의 최고의 기능인 열정과 그 열정의 최 상위 단계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랑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의 passion의 어원 passio는 '고통을 받는다'라는 뜻이다. 열정은 단순히 사랑한다는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희생하고 그 고통을 감수하는 상태이다. 성서는 바로 이러한 미적 정서로 감동을 주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목말라 찾는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때문에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규정하기위해서는 이제까지 연구된 결과가 보여주는 안정되어있는 엄격한 접근법도 중요하지만 불안정하지만 융통성 있는 접근법 역시 이점을 지니고 있다. 불안정하지만 융통성 있는 접근법은 개개의 독자에 의한 문학이론의 구체화를 가능하게 한다. 독자들은 때때로 문학적 규준 형성과 과정의 원칙들에 대하여 매우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며 좋은 문학과 그렇지 못한 문학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기도 한다.

이에 대해 잉가르덴(Roman Ingarden)은 "개개의 독자에 의한 깊고 다양한 '구체화'(concretizations) 속에 문학 작품은'생명'을 갖는다[12]고 하였다. 이 개념으로 맥패든(George McFdden)은 잠재적으로 문학 작품의 생명력을 지속시켜주는 모든 텍스트의 독자를 현저하게 서로 다른 기호 성향을 갖는 세 부류 즉, 작가, 전문적인 학자나 비평가, 일반 독서 대중- 으로 분류하였다.

문학의 정의를 교육적인 것과 연관하든 미학적인 것으로 인지하든 아니면 독자의 중층적 구체화의 결과로 수용하든 간에 복잡 미묘한 문학적 구조물들의 연구를 통해서 습득되는 지적 훈련의 결과는 소통전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여준다. 동일한 집단 안에서도 문학에 관한 현대적 관념들이 서로 다양하게 상충하고 있는 현상을 생각할 때 문학 이론들은 국경을 초월한 지평선에 관한 의식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비록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개개의 독자에 의한 깊고 다양한 구체화를 통해서 문학의 이 길에 좀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문학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의 기독문학의 과제를 숙고해본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인간을 억압하는 세상의 모든 것은 유용하고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권력을 지닌다. 그러나 문학은 인간을 억압하지 않기 때문에 문학적 감동의 원초적 느낌의 단계는 힘이 아닌 쾌락이다. 쾌락은 반성과 각오를 통해 삶의 본질을 총체적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생에 대하여 비전을 갖도록 만들어준다. 이것이 문학을 통해서 인간이 찾고자하는 길이다. 논 연구는 기독문학을 통하여 그 하나의 길을 제시하고자한다.

---

12) Roman Ingaeden,, *Das Literarische Kunstwerk* (1931), 3rd rev. ed. (Tibingen, 1975) 353-80.

II-2. 미적 정서의 불확실성과 대안

한국문단의 포스트모더니즘의 논쟁은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논쟁이 한창이던 1980년대부터였다. 포스트모던이란 용어는 원래 건축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 문학에서는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에 반발하여 새롭게 시작된 지적움직임을 일컫는 말이다. 이 지적움직임의 핵심적 이유는 종래의 관습적인 문학양식으로는 20세기 후반의 이 계시록적 시대의 리얼리티를 도저히 담아낼 수 없다는 문학적 고갈의식 때문이었다.

전통적으로 작가는 문학예술이 인간과 사회에 보다나은 삶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대 사건들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현실의 상황들이 고답적이고 귀족적인 모더니즘문학관이나 문학이 현실을 반영하고 재현할 수 있다고 믿는 리얼리즘문학관 모두에 대하여 회의하고 반발하도록 만들었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문학의 이 부정적 한계는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오직 작가는 파편화된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제시하여 포용할 뿐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기독 문학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에도 여려있어야 한다. 우리는 리얼리즘의 전통 속에서 태어나 모더니즘의 영향 속에서 자란 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핫산(Ihab Hassan)은 〝우리 모두는 다소간 리얼리스트이고 다소간은 모더니스트이며 또 동시에 다소간은 포스트모더니스트라고도 할 수 있다〞[13] 라고 하였다. 만일 문학이 동시대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오늘날의 문학은 분명 포스트모던적일 수밖에 없다.

리얼리즘이나 모더니즘시대에는 작가란 특별한 사람으로서 사회로부터 분리된 자이며 전지전능한 신적인 존재라는 낭만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작가의 상상이 창조력을 지니기 때문에 문학이 인간을 구원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작가의 현실참여는 문학적 사명으로서 상당한 권위의식을 느끼게 하였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의 작가들은 이러한 작가적 존재의미와 사명을 전적으로 부인한다. 나는 이런 현상을 '작가의 정서적 불확실성'이라 정의 하고자한다.

미적정서의 불확실성은 독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독자들은 문학작품의 에피파니(epiphany: 계시의 현현)을 거부한다. 작품을 통하여 고양되고 심오한 지적 내지 정서의 깨우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에피파니의 부정은 질서의 회복에 대한 불신이다. 한 작품이 추구하는 구심점을 거부하며 작품이 지향하는 사상도 인정하지 않는다.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시대의 작가의 권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독자의식의 한 예를 우리는 페러디(parody)에서 찾아볼 수 있다. 페러디는 기존의 어떤 것에 대한 흉내를 통해 그것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그것이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하나의 전략이다. 문학작품에 대한 페러디를 독자는 일종의 창작으로 느끼며 쾌감

13) Ihab Hassan, 〝POSTFACE 1982: Toward a Concept of Postmodernism〞in *The Dismemberment of Orpbeus: Toward a Postmodern Literature* (Madison: Univ. of Wisconsin Press, 1982) 264.

을 얻고 스스로를 비평가의 입장으로 승격시킨다. 수많은 해석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열린 시대, 열린 사조의 흐름 속에서 문학작품은 나름대로의 결말조차도 내지 못한 채 막을 내린다. 그리고 결말은 독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이 때문에 '독자반응비평'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졌고 '작가의 죽음'을 주장하는 탈구조주의가 부각됨으로서 다원주의 상대주의적 민주 지향적 사조가 팽배해졌다. 독자도 작가와 함께 공동으로 창작에 참여해야한다고 보는 것이다.

나는 미적 정서의 불확실성은 타락한 상태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열린 사조와 열린 의식을 특징으로 강조하여도 타락한 상태에서는 우리의 시야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창조된 인간은 최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였다. 창세기의 창조의 사건은 생명의 형태는 '하나님이 말함'으로서 생긴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비록 생명들이 만들어지고 창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다른 것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때문에 인간의 의식은 하나님에 대하여 열려있었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무한한 상상이 가능한 존재였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과 자연에 대해서 타자(他者)가 된다. 타자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의 모델인 동시에 견고한 자아라는 인식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완전히 분해되는 상태로서 소외감을 동반한다. 소외감은 극도의 불안과 혼란과 회의를 증폭시킴으로서 진리에 대하여 눈을 멀게 한다.

지라르(Rene Girard, 1923~ [14])는 문학이야말로 인간의 욕망관계를 적나라하게 복합적으로 알려주는 과학이라고 정의 하고 그의 학문적 여정을 총 결산한 『문화의 기원』(Les Orgines de la Culture)에서 문학적 욕망은 주체와 그 주체가 선망하는 '모델'을 통하여 우회하는 길이라 하였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욕망은 욕망하는 주체와 그 대상과의 관계인데 지자르는 욕망을 '모델의 모방'과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시대의 제 혼란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초월적 종교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한데 있다고 본다. 인간에게 신은 죽었고 인간은 신의 자리에 타자(자가가 추구하는 것의 모델)를 우상으로 두고 그가 자기에게 없는 가치성과 충만감을 갖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 때문에 인간의 모방충동은 극대화되고 그로 인해 경쟁은 날로 치열해진다.

한편 사회는 인간이 타자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와 간격을 철폐하여 동질화 시키려는 행동을 정당한 정의로 여김으로서 평등주의를 만들었지만 같으려하고 닮으려 하는 인간의 욕망을 끝임 없이 자극함으로서 폭력을 불러왔다. 그 결과로 평등주의는 욕망을 목표로 질주하는 광기를 조장한다.

---

14) 문학 평론가이자 사회 인류학자인 르네 지자르는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Mensonge Romantique et Verite Romanesque*, 1999)에서 문학 작품 속의 인물들이 어떻게 욕망하는가?를 밝힘으로서 인간 욕망의 근원과 성격을 규정 하고 이 욕망의 체계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특성을 제시함과 동시 폭력과 구원의 문제에 대한 하나의 답을 얻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문학 작품 분석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의 대부분의 저서들에는 지라르작업의 기독교적 성격과 함께 인간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이 많이 들어있다.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그가 선망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욕망할 뿐이며 사람들은 타인에 의하여 선망된 대상만을 선택한다. 욕망의 모방충동은 문학을 발생시킨 하나의 동력이다. 문학이 존재하는 한 모방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모방 심리가 없다면 문학 뿐 아니라 인간의 문화 창조나 교육도 불가능할지도 모르며 그 결과 폭력이 더 심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은 내 형제를 존경과 선망의 표적으로 삼으며 그를 모방 하려는 순간에 이미 그를 제거할 적으로 삼는다. 우리는 창세기의 아벨과 가인 형제의 이야기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창세기 4: 1-8)

똑 같은 욕망을 가진 두 인간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지라르는 욕망은 '나를 닮아라'와 '나를 닮지 말아라'의 이중 장치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즉 사람은 누구든지 타인이 선망하는 모델 이길 바라고 그런 욕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것을 싫어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막연히 인간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질화되고 차이가 없어지면 인간관계의 화합과 평화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차이의 소멸, 동일성의 승리는 사회를 가공할 폭력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구약의 아벨과 가인, 에서와 야곱 형제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하였지만 타락한 인간의 상태는 자연과 하나님에 대하여 타자의 관계이다. 성경에는 폭력은 타자로서의 인간이 저지른 범죄 행위인 것을 알려준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역사는 폭력의 역사이며 폭력으로 얼룩져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교와 고대의 문학이 폭력을 폭력인줄 모르도록 신화조작을 해왔다. 지자르에 의하면 이러한 위선을 세상에 최초로 폭로한사람이 예수그리스도라고 분석하고 있다.

신약에서 예수가 바리새인들로부터 언어적으로 또 로마인들로부터 신체적으로 집단폭력을 받은 사실은 이미 하나의 게시였다는 것이다. 성경은 이미 이시대의 현상을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었으며 그것이 포스트모던 사회의 하나의 특징으로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문학적으로 보면 미적정서의 불확실성은 마찬가지로 폭력을 부르는 요인이다. (마태복음 27:15-31)

폭력과 함께 현대문명의 병리현상중의 하나는 대중의 소비와 관련이 있다. 대중의 소비생활이라는 외적인 이 현상은 이시대의 우리의 내면과 정신의 상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전통사회에서 인간은 소비 상품과 친밀한 현존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소비사회에 들어서면서 상품은 사용가치와는 무관하게 그 자체가 기능적인 조직체계를 독자적으로 향유한다. 소비와 생산이 용도에 따른 필요와 충족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의 상품은 기능과 모습 디자인 등이 다른 기능들과 결합화여 소비자의 기호적 생활수준을 과시할 뿐이다. 그 결과 각자가 다른 사람과의 생활수준의 차이를 만들기 위하여 최신 유행의 값비싼 상품을 구매하지만 결국 모두다 똑 같아 지는 것이다.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1929~)는 이처럼 실용적 용도를 벗어난 소비사회에서 소비자는 흉내와 거짓꾸밈으로 소비생활에 탐닉함으로써 그 결과 '음탕함과 비대함'을 최고의 생활지표로 삼는 풍조를 만들어 냈다고 하였다. 결국 자아내면의 음탕함에 대한 기호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따뜻한 교감을 차단한다. 사랑을 증발시킨다.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갖지만 아무데도 깊이를 느끼지 못하고 넘치는 정보를 쓸데없이 비축하여 비대

해진다. 그리고 폭주하는 광고의 홍수 속에서 대중은 '흉내 내기'와 '거짓 꾸밈'의 환상적 열정이 마치 자신의 자아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작가가 문학을 통해 인간의 삶을 어루만지는 사람이라면 '음탕함' 대신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거짓'대신 '참'을, '허위'대신 '진실'에 대하여 고뇌할 수밖에 없다. 불안과 불확실성과 혼란과 회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삶에 제시해줄 책임을 안게 된다. 이 시대는 문학적 비전에 목말라하는 독자에게 기독문학은 그 하나의 비전을 제시해야할 것 같다.

III. 한국기독문학의 현주소

III-1. 한국 근.현대 문학사에서의 기독문학

문학사에서 말하는 '근대'나 '현대'라는 명칭은 서구의 모던(modern)에서 차용한 말로서 시대를 나타내는 용어가 아니라 문예사조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 경우에 모더니즘은 '근대주의'이기보다는 '현대주의'에 가깝다. 모더니즘은 한국의 문학사에서는 근대와 현대를 구분하는 분기점이다.

내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근대는 갑오동학혁명을 전후한 시기로 보며 전 시대와 구분되는 8.15해방에서 4.19를 거친 그 이후의 시기를 '현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비록 우리의 근대가 서구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처럼 완숙한 자본주위 사회화는 아니었을 지라도 외세의 침략이라는 특징상 타당한 구분이다.

그러나 현대 문학의 경우에는 19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초에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것은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근대적 의식을 갖춘 지식층의 자체 내 성장을 염두에 두어야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문학사의 30년대 모더니즘 운동이후의 한국문학을 현대문학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기독교문학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성서적 복음을 토대로 보편적 예술상을 달성할 때 이루어지는 문학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며 구원이라는 주제를 언어예술로 형상화하는 것이므로 기독문학은 구원을 믿는 신앙을 담고 있거나 그것을 지향하는 문학이다.

그러므로 기독 작가에 의해 창작된 작품으로서 기독교의 진리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은 물론 기독문학이 될 수 있지만 작가가 누구이든 간에 기독교적 일반 은총의 논리에 의해 창작한 작품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작품은 기독문학 작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독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이 주제는 신앙적 체험이 없이는 영적 흡인력을 지닐 수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작가의 글쓰기가 성령의 역사와 같은 영적 감동을 끼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 보기 때문이다.

이모든 조건을 충족한다하더라도 작품이 미적 감동을 주는 예술성을 지니지 못하는 작품이라면 진

정한 의미의 기독문학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한국문학의 근. 현대사에서 기독문학은 그 위치가 변방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기독문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1900년대에는 개화 계몽의 서사적 형상화로서 존재하였다. 기독교 소설의 출발은 성서의 우리말 번역과 찬송가의 번역을 거쳐 개화기 문학을 주도하면서 시작이 되었다. 작가들은 시대정신의 발로이자 기독교적 박애주의 사상의 실천을 묘사함으로써 서구문명의 바탕이 기독교임을 보여주는 순수한 교리적 입장에서 작품을 구성하였다.

기독교를 증명하는 한편 성령의 역사와 삼위일체하나님을 투사함으로서 기독교의 진리를 올바르게 표현하려고 시도한 작품이지만 당시 기독교는 개화의 열풍에 휩싸여 양적으로는 대단히 팽창하였으나 신자들 각각의 신앙상태는 지정한 의미의 기독교적 진리와 거리가 멀었다. 작가들은 신자들의 참다운 내적 반성을 촉구함으로서 기독교가 혼탁한 시대의 빛을 비추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깊은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교조적이고 상식적인 기독교소제의 등장정도로 기독성 여부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작품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선포하기위한 주제를 매우 교리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감동을 통해서이기보다는 교리를 교훈적으로 교시함으로서 독자들의 이성을 움직이고자한다. 때문에 문학의 기능면에서 효용성과 교훈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며 작품들의 구조적 특성도 매우 단선적이고 평이하다. 따라서 극적인 갈등이나 긴장감이 부족하여 한계를 지니고 있다.

작품의 기독교적 소재와 함께 플롯과 인물과 구성 면에서 다양한 변모를 보여주는 작품은 춘원 이광수와 김동인, 그리고 전영택의 문학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보여주며 기독교의 박애사상을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형상화함으로서 당시 한국기독교회를 냉정하게 비판하고 인물들의 풍자적인 묘사와 의식의 흐름을 통한 새로운 소설기법을 시도하였다. 기독교의 교리를 작품의 사상성으로 소화하려고 시도함으로서 작품의 공감의 폭을 넓히고 기독교적 주제를 드러낸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가 배경으로 내면화된 소설이란 점에서 기독문학작품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한편 30년대의 한국의 기독교는 영적진취력의 고갈을 충족시키려는 신앙운동을 일으킨다.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와 고난의 체험을 같이 함으로써 그 일치성을 강조하려는 신앙운동은 문학에도 영향을 미친다. 문학은 기독교의 사상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억제함으로서 기독교의 진리를 독자의 정서에 호소하는 문학적 형식을 취한다.

전후문학의 시대인 1950년대는 사랑의 문제를 기독교적 윤리의 차원에서 제시하면서 세속적 관능주의를 기독교적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극복하고자한다. 『월남전후』서구휴머니즘과 기독교적 갈등으로부터 새로운 휴머니즘을 이끌어내고자 시도한 김동리의 『사반의 십자가』, 한국교회의 속물주의를 풍자와 해학으로 신랄하게 비판한 작품, 이범선의 『피해자』 등이 있다.

한국전쟁이후 1980년대 오승재는 『대성리 교회』에서 주인공 김장로를 통하여 '주여,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어떤 사람이 참 신자이며 어떤 사람이 참 목자입니까?'라는 물음을 던진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이 같은 문제들을 주제로 다룬 작가는 오승재외에 정을병, 강정규, 김원일, 김용운, 백도기

윤남경 등이 있다.

이 작가들의 작품은 그동안 호교적인 성향을 보여온 작가들의 작품들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교회의 교조주의적 독선, 샤머니즘, 현세적 기복신앙, 위선적 이중성, 타성에 젖은 의식주의를 비판하였고 기독교의 비본질적인 양태들을 고발함으로서 그 반성을 촉구하였다.

기독교와 문학의 이 같은 흐름가운데서 김은국의 『순교자』는 진정 기독교적인 삶이 무엇이며 전쟁과 고난의 현실에서 구원은 어디에 있는지를 성서의 진리에 근거하여 진지하게 파 헤친다. 백도기의 『어떤 행렬』『청동의 뱀』역시 그 주제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집중되어있다. 십자가의 사랑은 감상이 아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스스로 타인의 고통을 짊어지고 고통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 작가는 타는 목마름으로 인간의 구원을 성서에 기대어 갈망한다.

1980년대부터 세기말적인 니힐리즘은 한국문학사에서도 외면할 수 없는 문학적 과제였다. 이 시대의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문학적 과제였던 동시에 기독문학의 중심과제다. 이러한 문제는 1980년대를 지나면서도 계속되어 이문렬, 이청준, 조성기, 현의섭등의 작가들이 이 주제를 형상화 하였고 80년대 이후에도 이들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기독교적 성향을 뛴 작가들을 몇 명 더 거론할 수 있다.

III-2. 기독문학의 논란과 그 대안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한국의 기독교 문학은 현실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나는 기독교문학의 본질, 즉 개념의 정의와 관계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문학과의 관계에서 야기된 문학의 작품성과 예술성의 문제이다.

즉 기독교 문학이란 개인적인 신앙체험을 쓴 간증문학이나 선교를 목적으로 쓴 설교문학, 그리고 기독교인 작가의 작품이거나 작품의 소제와 배경이 성서를 근거로 하여 작품이 구성되었을 경우로 국한되어있으며 그로인하여 기독교문학 작품은 일반적으로 정의 되는 문학작품에 비해 작품성과 예술성에서 매우 뒤떨어진다. 그 결과 기독교 문학은 일반문학계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문학의 개념에 대한 정의도 분명치 않으며 작품의 예술성을 논할 수 있는 준거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기독문학회장을 역임한 원로시인 황금찬 씨는' 창조문예'10 주년 특별대담에서'기독교 문학'이란 말 대신 '신앙문학'이란 말을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황시인은 이 주장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신앙문학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1. 기독교 문학이라는 말은 서양에는 없고 일본과 대만, 우리나라에만 있다. 우리나라에는 불교적인 문학도 있고 유교적인 문학도 있기 때문에 기독교 문학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문학의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한다.

2. 이 시대는 기독교를 상식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영혼으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문학이라는

관념적인 말 보다는 신앙문학이라고 해야 한다.

3. 우리가 신앙문학을 한다면 구약이 아닌 신약을 써야한다. 구약은 문학에서 이미 다 써 먹은 지 오래이다.

4.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없었던 '에바다'나 '달리다굼' 같은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셨는데 이 말 안에는 절대성이 담겨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의 언어를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

본 논문은 먼저 황시인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모순성을 지적한 후 기독문학에 대한본 논문의 입장을 언론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항에 대하여: '기독교문학'이란 용어를 대만, 일본, 그리고 한국 불과 세 나라에서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면 '신앙문학'이란 용어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신앙'에는 다양한 종교에 따라 수많은 신앙이 존재하며 그 수준도 가름 할 수 없도록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앙'이란 기준이 없는 주관적인 것이다. 그럼으로 이를 구분 짓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 '불교신앙', '무속신앙' 등으로 표시하게 된다. 그렇다면 기독교문학이란 용어보다 더욱 복잡하고 객관성을 상실하게 된다. '기독교'라는 용어가 첨부된 경우는 그나마도 객관성을 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양에는 기독교문학이라는 말이 없다'고 한 것은 문학의 특성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 보인다. 황시인은 이번 대담에서 뿐 아니고 이미 오래전 한 문학심포지움에서 이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2006년 11월 11일 총신대학교에서 열린 제 23차 기독교학문학회에서 제 5분과에서 '기독교문학의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 이란 연구를 통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한바있다.

문학은 역사의 산물이며 그 기원은 문명과 문화와 예술의 혼합체이다. 서양에서는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문학의 본질을 인식하는 주체였다. 문학은 언제나 인식주체가 개념적 이론적 규정의 문학론을 부수고 그 영토를 구축하는 것이다. 문학은 시대에 따라 그 존재 방식을 달리하면서 현실에 참여해 있다. 때문에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학이라면 기독교 문학이 문학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2항에 대하여: 황 시인이 의도한 뜻이 확실치는 않으나 그가 인식하고 있는 기독교문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기독교문학 작가들은 기독교문학이란 문학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그가 창조하신 천지만물과 인간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그가 베푸신 사랑과 은총을 찬미하는 문학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관념이 아니다.

관념적이기 때문에 '기독교문학' 말을 그만둬야한다면 문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이상 찬미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뿐만 아니라 기독 신앙을 담은 문학 대신에 이제는 불교나 마호멧, 또는 샤머니즘을 담은 문학을 전개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그도 아니면 비 종교화된 신앙 문학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인가.

그는 또한 기독교 문학의 시대는 지나갔으며 기독교란 상식적인 것이며 기독교문학이란 관념적이며 영혼을 다루기 위해서는 신앙문학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독교라는 용어가 상식적이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다. 기독교라는 용어는 하나님(예수님)을 신앙하는 종교라는 뜻인데 이것을 상식적이거나 관념적이라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황 시인은 수많은 시를 발표하였는데 그의 아름다운 시들이 기독교적이라 해서 관념적인 시로 바뀌지는 것은 아니다.

3항에 대하여: 문학의 소재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칠 흙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도록 하는 것이 문학의 사명이다. 구약은 다 써먹어 더 이상의 소재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은 너무나 엉뚱하다. 다윗의 시편은 읽는 사람들이게 참으로 감동을 더해주고 있다. 더 이상 다윗의 시를 읽지 말라는 뜻인지,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극적인 내용들을 더 이상 문학에서다루지 말아야 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필자가 좀 너그럽게 말할 수 있다면 황 시인이 구약시대가 끝났다는 신앙에 바탕을 두고 구주로 오신 그분을 소재로 삼아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드리고 싶다. 어떤 이들은 구약은 이제 존재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한 신앙은 위험한데 (왜냐하면 중세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 까지 기독교신앙은 검증을 거쳐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주관적인 신앙이 엉뚱한 결론 즉 구약은 더 이상 문학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4항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없었던 '에바다'나 '달리다굼' 같은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인이라는 말에는 어패가 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시며 믿음의 창시자요 지혜의 결정임을 기독교인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시인이라 하려고 한다면 그분이 사용한 아름다움 말씀들이 모두 아름다운 시라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예컨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은 하나의 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시의 차원을 넘어서는 진리의 말씀이다. 시 속에는 얼마나 많은 거짓꾸밈과 수사가 들어 있는가. 그 뿐 아니라 '에바다'나 '달리다굼'은 예수님이 창조하신 언어가 아니다. 이미 그 시대에 존재하고 있던 언어를 적절하게 적용하신 것일뿐이다. 또 그것이 새로운 단어의 창조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시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요즈음 수많은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용어를 만든 사람을 우리는 시인이라 부르지 않는 것과 같다.

IV. 한국기독문학의 과제

IV-1. 기독문학의 본질 면에서

문학에서의 상상이란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척도로 판단하거나 세계를 추상화 하는 관념적 사고가 아니라 세계를 다른 사물 다른 이미지를 통하여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방법이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인식의 수단이다. 문학적 상상을 통하면 우리는 문예사조의 흐름과 성서와의 관계를 포스트모

더니즘의 특징인 페러디로서 충분히 가시화 할 수도 있다. 이페러디는 창작이나 현대문학을 위한 비평의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또한 기독교적 세계관에 의한 문학세계의 비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출애굽기의 모세의 시대는 이집트인들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던 시대였다. 민중의 지도자인 모세는 왕족출신으로서 그의 역할은 지배계급에 대항하여 억압당하는 백성을 구하는 일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리얼리즘의 기수들은 교육받은 부르주아 계급출신이었다. 그들은 항상 사회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주어야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많은 경우에 문학의 작가들은 억압하는 힘에 대항하며 그 힘을 고발하고 민중을 구원하고자하는 사명을 스스로에게 부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율법은 리얼리즘 사고에 근거하고 있다.

예수의 탄생 목적은 바로 이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는 일이었다. 그의 시대도 모세의 시대와 같이 로마인들의 지배와 착취를 받았다.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의 역할을 기대했고 예수가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기를 바랬다. 그러나 예수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모세와는 달랐다.

그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을 뿐 아니라 바로와 싸우는 대신 마음속의 악과 싸워 이기는 법을 가르쳤고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는 대신 한사람 가난한 영혼의 아픔을 치유하기위해 눈물을 흘리는 인간이었다. 그가 꿈 꾼 것은 한사람 한사람의 정신적 자유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구세주라 불렀다.

문학적으로 본다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시대에 태어났으며 예수는 모더니즘시대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를 산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뇌와 역할도 모세의 그것과 다를 수밖에 없었다. 모세의 시대에는 저항할 대상이 눈에 보이는 분명히 실재하는 존재였다. 그래서 투쟁의 수단과 목적도 분명하고 그 결과가 눈앞에 가시화 될 수 있는 리얼리즘의 시대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인들은 바라보고 기어오를 파르나수스나 헬리콘도 없으며 바라 볼 피스카도 없기에 시적 영감은 고갈되고 문학은 관개가 잘못되고 늪으로 엉망이 된 습지를 헤매고 있다.[15]

그러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로마라고 하는 가시적인 리얼리티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편견과 마비와 도덕적 타락 등의 보이지 않는 실체와 직면한 시대였다. 투쟁의 대상이 더 복잡하고 보이지 않기에 더 어려운 시대상황에서 그리스도는 전통적인 모세의 율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는 당대의 아방가르드 기수였으며 그 결과는 죽음이었다. 그는 늘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작품(성경)속에서 그 의미를 늘 독자들에게 일깨워주었다.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보여 줌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이 그러하였듯 복음을 대중화 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초림을 재림으로 착각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었다. 십자가의 죽음이 지성소(진리)의 베일을 벗겨내었으나 진리의 법과는 다시 사라지고 베일에 가려 진리는 또다시 보이지 않게 되었으니 이제 예수의 재림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

15)파르나수스(Parnassus)나 헬리콘(Helicon)은 시신(詩神)이 산다는 그리스의 산봉우리를 말하며 피스카(Pisgah)는 요단강 동쪽의 산으로서 모세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 포스터(Edward Morgan Forster,1879-1970)는 그의 *Aspect of the Novel*에서 문학적 영감이 사라진 현대 소설에 대해 이렇게 비판을 하였다.

모더니즘이 은유에 의해 존재하였듯이 그리스도의 발화는 비유(parable)였다. 그리고 포스트모던 시대, 즉 그의 재림을 표상하는 것은 패러디이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죽음을 의미하였으니 그의 재림은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한다. 세상의 종말은 인류의 파멸이다. 그러므로 인류는 불확실성의 시간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혼돈과 불안에 직면해 있다. 진리의 현현이 유보된 불확실한 상황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무엇으로 이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가? 라는 점이다. 나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한 문학적 비전이 그 하나의 길을 제시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세계관은 한 인간이 사물들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기본적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이다. 때문에 세계관은 학문계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다.

세계관은 글자 그대로 '세계의 모든 것'이다. 우리의 세계, 즉 인간의 삶 일반, 고통의 의미, 교육의 가치, 사회 도덕성, 가정의 중요성 등 모두를 포함하며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인간이 갖는 기본적 신념과 관계된 것이다. 한 사람이 세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본적 신념들은 하나의 틀(framework)이나 유형(pattern)을 이루는 경향이 있다. 인본주의 자들은 이것을 가치체계라 한다.

그렇다면 세계관은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세계관은 삶을 어떤 방향으로든 인도해준다. 비록 인식되지 못하고 구체화 되지 않았을 때에라도 세계관은 우리 삶의 인도자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것은 인간의 독특한 성격중의 하나가 세계관이 제공하는 이와 같은 방향감각이나 인도 기능이 없이는 한 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관은 우리의 견해나 논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결정과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세계관은 성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월터즈(Albert Wolters)는 '세계관은 성경에 의해서 형성되고 점검되어야한다. 세계관은 성경적일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생활을 정당하게 인도할 수 있다. 이 말은 한 인간의 세계관 문제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드리는 사람과 받아드리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뜻한다'[16]고 하였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경에 비추어서 자신의 세계관을 점검해 보아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문학도 기독교적으로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문학 작가는 반드시 기독교적 문학이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기독 작가는 나름대로 문학의 어떤 이론이 구체적으로 기독교적이며 기독교인이 작품 활동을 하거나 독자가 그 작품을 읽을 때 어떤 원칙을 따라야하는지에 대하여 나름의 신념을 지녀야한다.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통해 문학이 어떻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잘 담아 낼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는 사람이 기독문학 작가이다. 이 작가의 삶의 전 영역에서 성경에 순종하고자하는 깊은 열망에서 쓰여 진 글이 기독문학이다. 그리고 기독교적 세계관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페러다임이다. 지라르의 예언대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종말은 요한계시록의 에페파니의 현현이며 이는 예수의 재림과

16) Albert M. Wolters,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Wm. B. Eerdmans Publishing Co. , 1985) 7.

관련되어있으며 여기에 문학적 구원이 있다고 본다.

IV- 2 기독문학 작가의 미학적 정의

문학은 작가의 경험을 그의 상상에 의하여 미학적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며 상상은 문학을 다른 언어예술로부터 구별 지워주는 요소이다. 작가의 경험의 내용과 그의 상상이 작품의 문학성과 작가의 자질을 논할 준거를 제시해준다. 작가란 인간경험을 제시하여 우리로 하여금 공유하도록 만드는 일과 그 자신을 미의 대상으로 제공하여 우리의 상상에 의해 예술적으로 관조하도록 만드는 사람인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 문학 작가란 기독교적 경험을 언어로 형상화하여 독자의 상상을 기독교적 진리의 차원으로 승화 시키는 사람이다. 독자가 작가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확대해 가도록 돕는 일, 이것이 문학의 존재이유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확대하기를 바라며 현재의 자기이상의 것이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으며 문학은 이를 가능하게 해준다.

인간을 기독교적 진리에 의해 살도록 도와주며 기독교적 삶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진 문학이 기독문학이다. 따라서 기독문학 작가는 모든 경험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반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미학적으로 형상화해야한다. 모든 경험 중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삶의 기쁨들이며 이는 은혜에 대한 인식과 그 감동으로 온다. 은혜는 기독교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이다. 작가의 경험은 은혜 속에서는 고통도 기쁨이 됨으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에 대한 경험을 포함한다.

미학적 언어로 표현한다함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가 인간에게 준 선물을 통한 심령적인 기쁨을 선교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삶의 예술로 펼쳐 보여 감동을 주는 것을 말한다. 신학이나 교리로서가 아니라 작가의 살아있는 경험으로서 펼쳐 보이면서 기독교적 인간관으로 완수하는 것을 말한다. 문학을 기독교적으로 만드는 것은 소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재에 대하여 문학적 광명을 줄 수 있는 작가의 열린 관점에 있다.

작가의 열린 관점은 상상에 의해서 만 가능하다. 문학 세계에서의 상상은 문명의 가장 고상한 기념비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 문학과 예술의 역사는 인간의 느낌과 경험과 상상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문학은 인간의 상상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문학적 유산에 귀를 기울이면서 인간의 진면목을 보고 보다나은 삶을 꿈꾸는 것이다.

나는 모든 예술 가운데서 문학만큼 인간의 마음에 관한 진실을 잘 말해주는 예술도 드물 것이라 생각한다. 문학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가장 강하게 경험하였던 바와 가장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던 바에 대한 기록으로서 상상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예술이다. 때문에 작가의 상상은 독자로 하여금 곧 상상의 세계에 들어가게 한다는 의미이다.

문학의 실재는 과학적으로 입증하거나 시험 될 수도 없는 것이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세계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문학을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은 상상에 의해서 뿐이다. 이에 대해 알빈 A. 리(Alyin A. Lee)는 '우리는 다만 상상이라고 부르는 이성과 정서의 혼합물을 통해서만 문학을 할 수가 있다'[17] 고 하였다.

상상은 한 작가의 정신이나 감성이 글쓰기에 갇히지 않을 때에 무한이 확대될 수 있다.글쓰기에 갇힌 간증문학 내지 설교, 선교의 협의의 기독문학으로는 독자의 열린 감응을 기대할 수 없다. 독자의 감응 없는 곳에는 문학적 섬광이 존재하지 않는다.

작품의 성서적 주제와 배경에도 불구하고 문학적 섬광이 없는 글은 독자를 기독교적으로 감동시키지 못한다. 교조적인 말 속에는 기독교적 윤리나 도덕관념들이 있을 뿐 움직임이나 닿음과 같은 생명의 리듬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서를 읽을 때 그 내용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읽는 사람들의 심령을 흔들 때 감동을 느끼고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그 영혼이 소생될 수 있는 이치와 같다.

이 때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우리는 성령이라 한다. 기독 작가의 작품이 성령의 역사와 같은 예술적 생명력을 지녀야할 당위가 여기에 있다. 때문에 기독문학 작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삶의 생명력을 공급받아야하는데 이것은 오직 작가자신의 문제이며 내밀한 비밀이다. 이 비밀이 작품의 생명력을 결정한다고 본다.

생명은 원초적 일상의 싱그러움이며 닿음이다. 자연에게 너에게 그리고 영원에 닿음이며 감응이다. 삶의 하나의 섬광과 같은 것, 왜소해도 부끄럽지 않은 넉넉함이다. 닫힘에서 열림으로 가는 은밀한 통로이다. 섬광은 연약한 실존을 다독여줄 수 있는 은근하고 따뜻한 배려이며 산뜻한 새벽공기 같은 희망의 기운이다. 기독문학 작가는 독자에게 이러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이다. 생명은 감동에서 오는 삶에의 전율적인 힘이며 상상의 산물이다. 이것이 기독문학 작가가 자신의 상상을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열어두어야 할 당위성이다.

끝으로 사이버 공간으로 대표되는 21세기는 지식사회이며 문화의 시대이다. 그리고 문학은 문화의 꽃이다 나는 문화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작가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하여서는 기독문학 작가들은 큐베르네테스[18]의 역할을 잘 감당할 사명을 안고 있다고 본다.

---

17) Alyvin A. Lee and Hope Arnott Lee, *The Garden and the Wildernes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3) 45.

18)정충영. 『경영이해』(서울: 박영사, 2006) 299.
원래 사이버(cyber)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 큐베르나오 에서 나온 것으로서 기본적으는 '배의 길을 조정하다' (steer)라는 뜻을 가지며 명사형인 큐베르네테스는 '조타수' 조정사, 인도자 통치자 '등의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V. 결론

기독문학에 대한 본 논문의 관점은 첫째, 성서는 '창조적 상상'의 '언어적 소산'이라는 점이다. 창조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에서도 그 대응물을 찾을 수 없는 독특한 담화라는 특성을 갖는다. 어떤 특수한 행동 양식 속에만 갇혀있을 수 없다는 의미다. '언어적 소산'이란 문학은 언어에 의해 "말하여진 것"(things said)과 언어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구화의 패러다임을 근거로 언어적 소통의 맥락 안에서만 그 의미를 정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성서 문학은 '문체'를 특성으로 하는 담화이다. "문학은 문체를 통해서 의미론적 기능이나 작품에서 말하고자하는 내용을 '초월하는 역기능적'(dysfunctional) 측면을 지닌다."[19] 우미, 우아 매력 호소력 등의 단어들이 이 역기능적 속성을 표현하는 말들이다. 성서는 인간이 어떠한 문체로도 표현하기 힘든 초월의 담화를 다루고 있다. 그것은 하늘나라의 사건을 인간의 문체로 표현할 때의 어려움인 것이다. 문학은 그 관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가치중립적이다. 그러나 기독교 문학이 필요한 이유는 문학의 본질인 경험과 상상에 대한 관점이 기독교 작가와 일반 문학 작가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 문학에서는 작가의 상상이 창조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문학이 종교를 대신할 수 있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독교 문학에서는 문학적 상상력은 창조력을 지닐 수 없으며 작가의 경험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반영일 뿐이라고 본다. 따라서 기독 문학이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미학적 언어로 가시화하는 작업으로 문학의 영토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기독문학 작가는 그의 문학을 기독교적으로 해야 하며 반드시 기독교적 문학이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기독 작가는 나름대로 문학의 어떤 이론이 구체적으로 기독교적이며 기독교인이 작품 활동을 하거나 독자가 그 작품을 읽을 때 어떤 원칙을 따라야하는지에 대하여 나름의 신념을 지녀야한다.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통해 문학이 어떻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잘 담아 낼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는 사람이 기독문학 작가이다. 이 작가의 삶의 전 영역에서 성경에 순종하고자하는 깊은 열망에서 쓰여 진 글이 기독문학이다. 그리고 기독교적 세계관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페러다임이다. 지라르의 예언대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종말은 요한계시록의 에페파니의 현현이며 이는 예수의 재림과 관련되어있으며 여기에 문학적 구원이 있다고 본다.

세이어즈(Drothy Sayers)는 ' 위대한 일은 ... 하나님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진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 임마누엘을 추방하지 않는 일 '[20]이라 하였다. 나는 미학의 모든 영역에서 그

---

19) Morse Peckham, "Literature": Disjunction and Redundancy in the *What is Literature?* ed., Paul Hernadi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1978)

20) Dorothy Sayers, *Christian Letters to a Post- Christian World*, ed. Roderick Jellema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69) 71.

리스도를 추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한국의 기독문학은 이상과 같은 관점을 확립할 때에 비로소 미학적 의미에서 기독문학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Alter, Robert and Frank Kermode, eds. *The Literary Guide to the Bible* (Cambridge: Harvard Unv. Press, 1987)와 Frye, Northrop, *Anatomy of Criticism* (Princeton: Princeton Unv. Press, 1957) 그리고 Ryken, Leland, *The Literature of the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1974)
* Besant, Walter, and Henry James, *The Art of Fiction* (Boston: De Wolfe, Fiske & Co., 1934) 3.
* Chad Walsh, A Hope for Literature, "in *The Climate of Faith in Mordern Literature*, ed., Nathan A. Scott, Jr. (New YOrk: Seabury Press, 1964) 232.
* Crossan, D., 'Ruth amid the Alien Corn': Perspectives and Methods in contemporary Biblical Criticism, "in the *Biblical Mosaic* (ed. R. Polzin and E. Rothman (Philadelphia: Fortress, 1982)
* Flannery O'Connor, *Mystery and Manners,* ed., Sally and Robert Fitsgerald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57) 174. 196.
* Frye, Northrup, *The Great Code* (London: A가, 1982) 62.
* Ihab Hassan, `POSTFACE 1982: Toward a Concept of Postmodernism "in *The Dismemberment of Orpheus: Toward a Postmodern Literature* (Madison: Univ. of Wisconsin Press, 1982) 264.
* Ingaeden, Roman, *Das Literarische Kunstwerk* (1931), 3rd rev. ed. (Tibingen, 1975) 353-80.
* J. Culler, Structuralist Poetics (Ithaca: Cornell, 1975) 113.
(1) * Lee, Alyvin A. & Hope Arnott Lee, The Garden and the Wildernes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3) 45.
* *Lewis,* C. S., *Reflections on the Psalms* (Glasgow: Collins, 1961) 10.
* Lewis. C. S., " Preface" to *Paradise Lost* (Oxford Univ. Press, 1942) 3.
* Peckham, Morse, "Literature": Disjunction and Redundancy in the *What is Literature?* ed., Paul Hernadi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1978)
* Sayers, Dorothy, *Christian Letters to a Post- Christian World*, ed. Roderick Jellema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69) 71.
* Wolters, Albert M.,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Wm.B.Eerdmans Publishing Co. , 1985) 7.
* 정충영. 『경영이해』(서울: 박영사, 2006) 299.